



## 랜선 넘어 하나된 2020 대동제

###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시행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이하 총선거)가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이번 총선거는 3개 선분이 출범한 인문 예술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위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인문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IT공과대학 ▲상상력인재학부는 단선으로 진행된다. 디자인대학은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다.

지난 6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선거 유세가 진행된다. 단, 총대의원회 후보자는 제외한다. 각 기구의 선거운동본부 페이지를 통해 선거 운동 및 후보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학생은 e-class를 통해 기구 별 선거 운동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총선거 정책토론회는 16일 오후 2시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학생들은 선착순 50인까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페이지를 통해 본 행사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장예준(사회과학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기존의 오프라인 투표보다 온라인 투표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점을 이용해 정책토론회와 선거 운동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번 총선거 총학생회 후보 'EASY', 총대의원회 후보 '파란', 학생복지위원회 후보 '바다'를 인터뷰했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2020학년도 온라인 대동제가 지난 11일·12일 양일간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동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관객을 50명으로 제한했다. 본교는 한성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축제를 실시간 중계했다.

축제 1일차에는 LOL E-sports대회 결승전이 열렸다. 지난 11월 첫째 주까지 진행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미드가 구멍'팀과 'VST'팀이 결승전에 참여했다. 해설가 클라우드 템플러(이현우), MC탁,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이 해설을 맡아 게임을 중계했다. 결승은 3판 2선승으로 진행됐다. 우승을

차지한 '미드가 구멍'팀의 박도현(컴공 4)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팀워크가 원활하게 진행돼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제 2일차에는 ▲동아리축하공연 ▲시상식 ▲온라인 대동제 콜라보 무대가 진행됐다. 동아리축하공연에는 버스킹 동아리 4호선 마이크, 풍물 동아리 탈패, 오케스트라 동아리 Brillante가 무대를 선보였다.

슈퍼스타 상상부기와 코로나19 UCC 공모전 시상식도 이뤄졌다. 대동제에서 진행된 슈퍼스타 상상부기는 가요제 행사다. 예선전 총 34팀, 본선 총 10팀이 진출했다. 슈퍼스타 상상부기 행사에선 ▲대상(1팀) ▲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3팀) ▲특별상이 수여됐다. 순위에 따라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에어팟 2세대가 지급됐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초청가수와의 듀엣 공연 기회가 주어졌다.

초청가수로는 가수 황인욱과 로시(Rothy)가 참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지민 학생은 황인욱과 '포장마차'라는 곡으로, 우수상을 받은 김정훈 학생은 로시와 'Ocean View' 곡으로 무대를 장식했다.

코로나19 UCC 공모전 시상식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10팀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대상(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2팀) ▲장려상(6팀)으로 수상이 이뤄졌다. 대상을 수상한 전수연(IT공과 2) 학생은 "코로나19로 많이 지쳤지만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힐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대동제를 기획한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올해 첫 온라인으로 대동제를 실시해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코로나19로 1학기 축제를 즐기지 못한 학우가 온라인 대동제를 통해 즐거운 시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한성대신문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 제2차 대의원총회 개최, 학생회칙 대거 개정돼

지난 6일, '2020학년도 제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회에는 대의원 51명이 참석했으며, 학생회칙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번 총회는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 선거 시행 세칙(이하 선거세칙) 개정, 학생회칙 개선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모두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020년 하반기 감사와 이번 총선거에 모두 적용되며, 이날 개정된 학생회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 직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된 별지에 명시된 개정내역을 통해 세부적인 개정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감사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총대의원회 의장의 중앙감사위원장 겸임
- 총대의원회 감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
- 정기감사 2회로 변경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총대의원회 의장(이하 총대의장)은 중앙감사위원장을 함께 맡는다. 중앙감사위원장은 감사에 관한 모든 직무를 감독하는 직책으로 기존에는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감사국장이 맡았다.



▲장예준(사회과학 4) 총대의원회 의장

총대의장은 "임명직인 감사국장이 중앙감사위원장 자격으로 선출직인 단위를 감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선출직인 총대의장이 중앙감사위원장을 맡게 해, 해당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총대 감사를 위한 상설 기구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감기관인 총대의장이 임명하는 감사국장이 총대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감사의 정당성 문제가 꾸준히 언급됐다. 신설된 감사세칙 제18조는 '총대의원회의 감사는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되, 각 단과대학별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총대의원회의 감사에 대해서는 상설기구에 포함된 상임위원의 전원 만장일치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총대에 대한 감사는 각 단과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총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가 맡을 예정이다.

정기 감사 횟수도 변경됐다. 방중 감사 2회, 학기 중 감사 2회 총 4회의 정기 감사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로 감소했다. 장 의장은 "방중에는 대부분의 단위가 예산을 거의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방중감사 시행이 큰 의미가 없어서 감사를 이원화했다"고 말했다.

## 선거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온라인 선거활동 합법화
- 징계 관련 규정 세분화
- 선거홍보물 제한 명문화

먼저 기존 세칙에서 금지됐던 온라인 선거활동 중 일부가 SNS에 한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전 선거세칙 제21조 10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식 SNS 페이지 이외의 온라인 선거활동을 금지했다. 신설된 선거세칙 제47조 2항은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페이스북 페이지 1층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의 댓글 활동을 가능하게 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 수 있게 됐다. 장 의장은 "온라인 선거운동에 선본 전체가 참여할 경우 인맥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정·후보와 선거운동본부장만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징계 관련 규정도 세분화했다. 기존 세칙에 따르면 징계는 시정명령과 경고 2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가 시정명령, 주의, 경고 3가지로 바뀌었다. 장 의장은 "경고는 낙선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징계다. 기존 세칙에는 징계 방식이 2가지 뿐이라 중선관위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애매했다"며 "명확한 징계를 위해 징계를 3단계로



▲상상관 703호에서 온라인으로 대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선거홍보물 제한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결정되던 사항도 명문화했다. 포스터는 A2용지 크기로, 피켓의 크기는 4절지 이하 등 선거홍보물의 종류별 규격을 선거세칙에 규정했다.

## 학생회칙 개선의 주요 내용

- 단위별 부회장 궐위 시에 대한 규정 추가
- 학내 상황 반영 및 부서 명칭 개정
- 용어 통일

단위별 부회장의 궐위 시에 대한 규정은 부총학생회장 외 나머지 단에서 부회장 및 부의장·부위원장 이 공석이 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기존 학생회칙 제30조 4항에는 총학생회 내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나머지 단위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각 단위별로 부학생회장, 부의장, 부의원장, 부회장 등이 궐위 시 각 단위별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동아리 회장단에서 후보를 선임한 뒤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새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단, 정의장, 정학생회장, 정위원장 등의 판단 하에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있게 했다.

대의원 징계방법, 부서 명칭 등 현재 학내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은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기존 학생회칙 제21조 4항에는 '박탈된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 봉사시간, 비교과 포인트 미지급'이라고 명시됐지만 2015년부터 박탈 여부에 관계없이 대의원에겐 봉사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에서 봉사시간을 삭제하고, 제22조 4항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대의원 장학금을 미지급한다고 개정했다.

부서 명칭으로는 문화국을 삭제하고 홍보국과 운영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총학생회가 두는 집행국을 총무국, 기획국, 정책국, 문화국, 졸업지원국 등으로 명시했다. 그 중 문화국은 근 5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명칭이다. 총학생회 이외에도 총대의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 같은 타 단위의 부서 명칭도 현 상황에 맞게 신설되거나 삭제됐다.

'부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이 혼용된 것도 바로잡았다. 기존 학생회칙 제29조 2항에는 '부학생회장'으로 명시됐지만 제33조에는 '총부학생회장'이라고 명시돼있는 등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 중간고사 부정행위 의혹, 대학본부 "접수된 신고 없어..."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중간고사 이후 여러 수업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시험이 진행된 일부 과목에서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취재결과 공통된 과목에서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나, 대학 본부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투자금융론'의 온라인 시험 진행 도중 일부 학생의 부정행위를 목격했

다는 글이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재됐다. 해당 과목 수강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시험 도중 교수가 불시에 모든 학생의 마이크를 켜줄 때, 일부 학생이 시험 문제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곧바로 교수가 학생의 이어폰 착용을 금지하는 등 부정행위 개입 소지를 제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과목 교수는 지금까지 시험 부정행위 의혹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역(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학생처에 진위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며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지면 학칙에 의거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T공과대학 '웹프로그래밍' 과목에서도 부정행위 관련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는 "시험 도중에 교수가 마이크를 켜줄 때, 일부 학생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며 "교수가 학생 간의 대화를 제지했지만 이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

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아직까지 부정행위와 관련해 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없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지난 학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학생 사이에서 소문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의 특성 상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신고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제보자는 "부정행위

를 적발해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면 신고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시험 도중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자세히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신고를 받아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수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돼도 학사로 신고하기 보다는 교수가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처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본부는 e-class를 통해 2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 부정행위 관련 신고 접수 안내를 공지했다. 신고는 11월 2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안 팀장은 "부정행위 신고자와 협조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 '한성대학교 상상부기 프렌즈 공모전' 개최

오는 30일까지 본교는 '한성대학교 상상부기 프렌즈 공모전'을 진행한다. 본 공모전은 한성대학교 공식 캐릭터인 상상부기 프렌즈 디자인을 공모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혹은 3인 이내의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참가자는 캐릭터 이름, 설명, 제작의도, 활용예시를 포함한 기획안과 캐릭터 2종 이상을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출품작은 본교 홍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받는다. 심사는 ▲정의성 ▲실용성 ▲스토리텔링 ▲대중성 ▲상상부기와의 조화를 기준으로 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학내구성원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심사 점수와 온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해 후보작을 선정하며, 후보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뽑는다.

결과는 12월 21일에 발표되며, 시상은 ▲대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으로 이뤄진다. 순위에 따라 2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상상부기 프렌즈로 선정되면 한성대학교 공식 캐릭터로 등록된다. 해당 캐릭터는 한성대 로고를 새겨 다양한 캐릭터 굿즈 제작 및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정원 기자 moom625@hansung.ac.kr

## 온라인 홍보단 '소통-e' 활동 시작해

본교 온라인 홍보단 '소통-e' 제1기(이하 홍보단)가 오는 12월 21일까지 학내 커뮤니티와 본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홍보 활동을 한다. 홍보단은 재학생 7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위로 및 격려 온라인 활동, 학교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 SNS 홍보이다. 현재 홍보단은 학교 공지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와 학교 정문 및 건물 출입 안내 영상을 게시했다.

학생은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알려주세요', '#홍보단'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질문을 게시하고 홍보단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질문은 학교 시설, 학

사 일정, 대학 생활 등 학교와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 인물 및 단체 비방, 학교의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은 사안, 특정 과목 등에 관한 질문은 답변 받을 수 없다.

홍보단 기획팀장 김성음(산공 4) 학생은 "사소한 질문에도 답변하고 있다. 학생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홍보단은 오랜 비대면 상황으로 지친 학생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며 "학교 활동을 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한 학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 상상력교양대학, 사피엔스데이 영상 공모

상상력교양대학에서 11월 22일까지 사피엔스데이를 진행한 다. 사피엔스데이는 2018년부터 상상력교양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이다. 작년까지 독서토론 대회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상상력 아이디어 제안 영상 크리에이팅 공모로 진행한다.

참가대상자는 '삶과 꿈', '상상력 이노베이터' 과목을 수강했거나 수강 중인 재학생이다. 개인 혹은 3-5명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과학기술이 바꿀 미래 다문화 사회 또는 글로벌공동체 사회에 대한 상상을 주제로 한 5분 이내의 영상물을 제출해

야 한다.

출품된 작품은 주제 부합도, 기술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입상한 팀에는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이 수여되고, 순위에 따라 비교과 포인트와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참가자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된다.

홍상현(상상력교양대학) 교수는 "사피엔스데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건조한 언택트의 시간을 가슴 따뜻하고 유쾌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박현규 기자 pizzdragonheart@hotmail.com

# 2021학년도 총선거, 변화 만들어낼까

## 제36대 총학생회 후보 'EASY'

### “소통으로 학생 권리 보장 힘쓰겠다”

제36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기호 1번 'EASY'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총학생회장 후보에는 이경택(컴공 3), 부총학생회장 후보에는 지승빈(IT 2)이 각각 출마했다. 선본의 주요 공약은 ▲등록금 심의 위원회(이하 등심위) 과정 공개 ▲학교 본부에 느껴지는 불편한 점 개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학교 내외의 안전권 및 편리성 보장 ▲전체 학생회 운영 방식 체계 구축이다.

먼저 등심위 과정 공개에 대해, 선본은 학생이 등록금 사용 실태를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조회 수가 현저히 낮은 점을 언급했다. 등심위 회의록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 후보는 “등심위 과정과 결과를 카드 뉴스로 제작해 다양한 SNS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학교는 학생 1인 교육비가 낮다”며, “학생 1인 교육비의 다른 항목과 함께 자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본부에 느껴지는 불편한 점 개선에 대해 본부의 답변이 더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본은 'Hello, Mr.President'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Hello, Mr.President'는 이창원 총장이 학교 구성원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창구다. 이 후보는 “학생의 질문이 총장실이 아닌 관련 부서에 먼저 넘어간다. 민감한 질문에는 학교가 답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 때문에 답변 과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문제를 설명했다.

선본은 “한성정원을 개설해 빠른 답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성정원은 학생이 학교에 직접 건의하는 시스템이다. 건의에 대한 조교 및 담당 부서의 답변을 받지 못하면 학생회 차원에서 평생 지도 교수제로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부 강의의 수업 만족도 평가 공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일부 강의에서 강의 영상 재사용, 2주차 이후 업로드 없음, 유튜브 링크로 수업 대체 등 논란이 있다. 학생 측의 강력한 입장이 있어야 대학이나 교수 측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본은 수강신청 시 대면과 비대면을 학생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권 보장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강신청 방식을 바꿀 수 없는 경우 일부 실습 과목은 전체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단체 학생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내외 안전 및 편리성 보장에 대해서는 진리관 옆 공원길 개방을 공약으로 걸었다. 현재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재개발 상황으로 정문 출입만 가능하다. 지 후보는 “도보거리 증가로 등교 시간이 늘어났다”며, “공원길을 개방해 학생의 시간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회 운영 방식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방식 변경을 언급했다. 단과대학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총학에서 자료를 받아 새로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꿀겠다는 것이 선본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총학에서 진행한 지난 설문조사의 경우 각 단과대학에 대한 의견이 많아, 대학 전체에 대한 의견이 부족했다”고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선본은 “믿고 지지해 준다면 소중한 한 표 잊지 않고 학생의 편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며 이번 선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이경택 총학생회장 후보(좌)와 지승빈 부총학생회장 후보(우)

## 제37대 총대의원회 후보 '파란'

###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로 청렴한 총대 구성할 것”

제37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선거에는 기호 1번 '파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입후보했다. 정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에는 각각 차원식(스마트 3)과 유영선(IT 3)이 출마했다. '파란'의 주요 공약은 ▲대의원 역할 강조 ▲대의원총회·상임위원회 일정 공개 ▲통합 온라인 투표 실시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감사 OT 분기별 진행 ▲예산안 회의 결과 항목별 공개다.

선본은 대의원 역할 강조에 대해 재학생의 대의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을 해결해야한다고 답했다. 차 후보는 “트랙제로 인해 비교적 학내 소속감이 적어 대의원의 책임감이 낮다”며 “대의원 역할에 충실하도록 책임감을 도모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OT를 추가로 진행해 학과차원에서 대의원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총회·상임위원회 일정 공개에 대해서는 총대회의 날짜를 미리 알려 학생이 참관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학생회칙에 따라 대의원총회는 학생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차 후보는 “많은 학생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며 “일정을 공개해서 학생이 회의를 참관한다면 학칙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어떻게 인준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온라인 투표 공약은 서로 다른 날 이뤄지던 단과대학 트랙장 선거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선거를 같은 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유 후보는 “온라인 투표를 통합해 진행하면 단과대학 선거와 중운위 선거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며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부정선거나 조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4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나 개표 오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온라인 투표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공약은 트랙장 선출 시 후보의 서류를 타 단과대학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검토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트랙장 후보가 출마한 트랙의 단과대학선관위원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차 후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트랙장 후보가 단과대학선관위원장을 아는 경우 서류 검토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공약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 OT 분기별 진행은 기존에 1년에 1번 진행하던 OT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하는 것이다. 차 후보는 “학생회, 단과대학, 트랙에서 감사를 연 2회 진행했는데도 오류가 많았다”며 “감사 OT를 늘리면 감사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회의 결과 항목별 공개 공약은 예산 집행 과정마다 예산안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선본은 기존에 감사 후 예산안 회의 결과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예산안 회의 직후, 예산 집행 직후까지 포함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차 후보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전 회의 결과를 항목별로 공개한다면 어느 단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가져갔는지 알 수 있다. 학생자치기구에서 학생 회비를 더 알뜰하게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본은 “우리의 공약과 올해 총대에서 진행하지 못한 공약까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박현규 기자 pizzadragonheart@hotmail.com



▲차원식 정의장 후보(좌)와 유영선 부의장 후보(우)

## 제38대 학생복지위원회 후보 '바다'

### “복지 확대로 편리한 학교생활 만들겠다”

제38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후보로 기호 1번 '바다'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출마했다. 학복위 정위원장 후보는 37대 학복위 부위원장 정해술(스마트 3)이 출마했고, 부위원장 후보는 37대 학복위 기획국장 조진웅(컴공 2)이 출마했다.

선본의 주요 공약은 ▲마스크 제공 정식사업화 ▲대여물품 정기소독 및 방역 체계 구축 ▲재개발 주변 구역 야간 순찰 ▲배달존 설치 및 플랫폼 활성화 ▲학교 인근 따릉이 설치 건의 ▲한성알고올팔찌 제작 ▲주차권공동구매 사업 ▲유학생들을 위한 학내 소식 외국어 공지 등이다. 선본에게 공약의 세부사항을 물어 봤다.

마스크 제공 사업에 대해, 선본은 기존 마스크 배부 사업보다 수량을 확대해 한 명 당 주 1대 배부를 주 2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여물품 정기소독 및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여창구에 아크릴판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보조배터리, 공학용 계산기, 우산 등도 대여 및 반납 시 소독하고, 해당 장면을 정기적으로 실시간 방송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재개발 주변 구역 야간 순찰에 대해서는 총대의원회와 학복위 내 지원자를 모집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늦은 시간에 재개발 구역을 통학하는 야간 학생을 위해 2-3명이 팀을 이뤄 순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존 설치 및 플랫폼 활성화에 대해서는 배달 음식 공동구매를 계획했다. 배달존은 상상빌리지 지하 1층에 설치할 예정이다. 학생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존에서 배달음식을 배부한다. 정 후보는 “배달존 게시판을 통해 맛집 리스트를 공유하며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더불어 잔반처리 및 분리수거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릉이 설치하는 학교 인근 삼선SK뷰아파트 주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성북구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 주변에 가장 근접한 따릉이 설치 장소는 한성대입구역 및 창신역이다.

한성알고올팔찌는 술자리를 가질 때 자신의 음주 의사를 색상을 통해 밝힐 수 있는 팔찌다. 선본은 건강한 음주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내기새로배움터 혹은 MT에서 팔찌를 배부할 계획이다.

주차권공동구매 사업에 대해 선본은 기존 10,000원인 한성여자고등학교 및 주차장 주차권을 학복위 측에서 공동구매해 5,000원에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대상 외국어 공지 제공은 학생회 행사 및 학사 일정을 외국어로 번역해 공지하는 것이다. 번역한 공지는 국제협력팀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내 행사 참여도가 낮다”며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변함없는 바다처럼 학생의 편의를 위해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복지위원장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는 “당신이 된다면 코로나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학우에게 학교생활에 편이뿐만 아니라 흥미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정해술 정위원장 후보(좌)와 조진웅 부위원장 후보(우)

# '학령인구 절벽' 앞에 선 지방대학

대학의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한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분석에 따르면 25개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진단평가)의 '재정지원제한' 여부의 기준이 되는 97%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상태가 되면, 해당 대학 재학생이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등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작년 대비 6만 명 가량 줄었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발표에서 2021년까지 최대 38개 대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작년 8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에 2019년 대학 입학정원 대비 12.4만 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지방대학교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서 지방대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대학알리미의 분석에 따르면 충원을 97%를 충족하지 못한 25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지방에 소재를 둔 대학이었다. 서울 소재지의 대학은 두 군데뿐이었다. 국가 재난이 지방대를 먼저 덮친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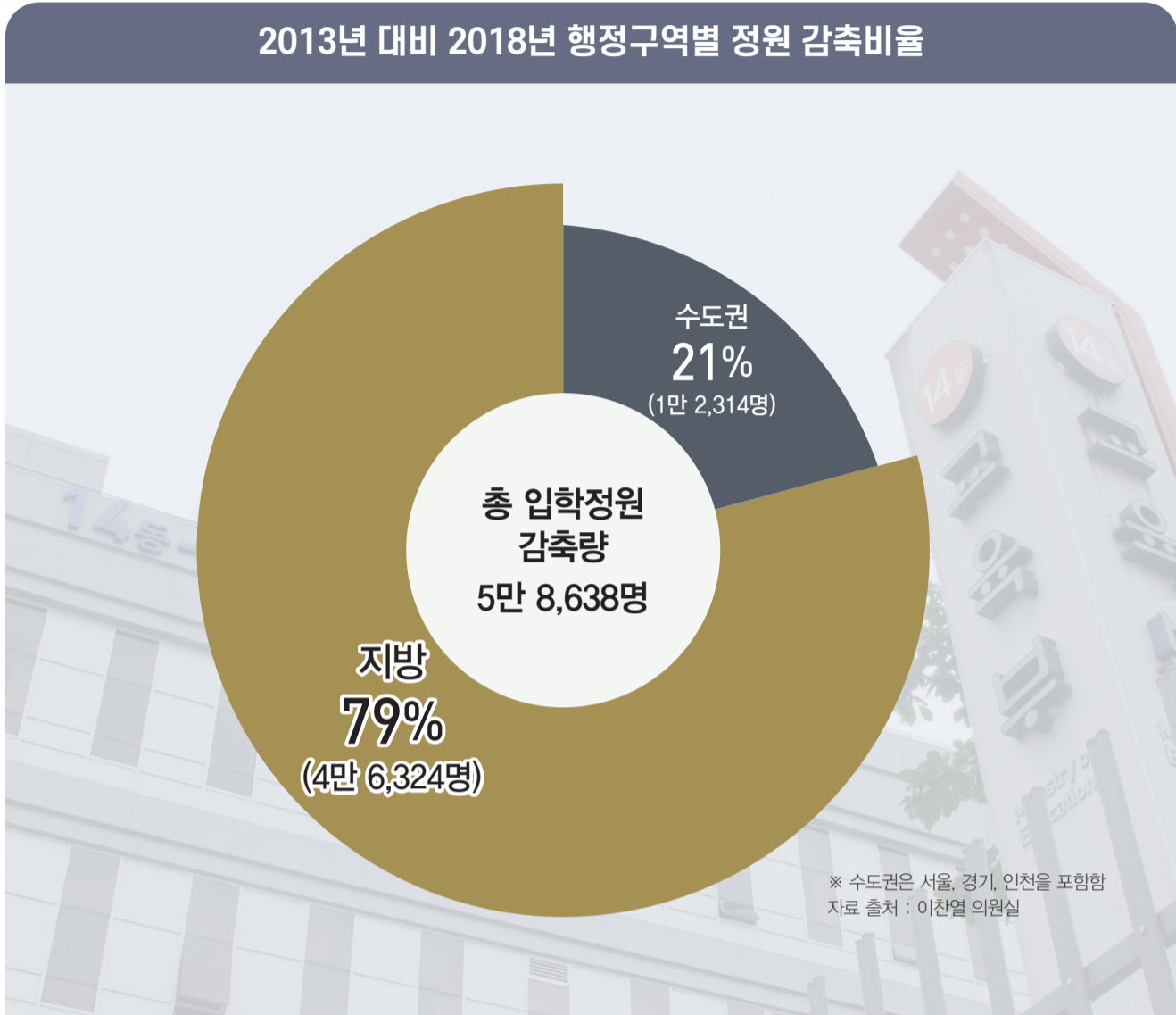
## 학생에게 외면받는 지방대

지방대가 피해를 입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다. 2021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평균 10.5대 1인 것에 비해 지방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절반 수준인 평균 5.6대 1로 나타났다. 지방권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한 학생의 수시 원서접수의 최대 지원 횟수인 6회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순호(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의 수도권대학 선호로 인해 지방대에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도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든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2020년 행정구역별 입학정원에 따르면 일반·교육대학의 서울 소재 정원이 전국 대학 정원의 2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면학, 편의 조건, 취업 등의 요소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다, 유명 대학이 서울에 쏠려있는 탓에 수험생은 수도권 대학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 연구단에서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지방권(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린 교육, 취업 인프라로 인해 지방대가 외면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지방대 두 번 죽이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평가를 통해 하위권 대학부터 정원을 감축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구조



##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에 더 큰 타격 입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지방대 문제 심화해 정부 주도의 정책 마련해야

개혁평가(이하 개혁평가)를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전국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학교에 재정지원제한, 정원 감축 등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위권 대학부터 정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신입생 충원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이 낮은 지방대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 교수는 "진단평가가 대학을 서열화하고 지방대에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일부 지방대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을 조절하거나 연구역량 증진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개혁평가보다 진단평가에서 하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개혁평가의 정원 감축 대상은 전국 대학의 85.4%였던 반면, 2018년 진단평가의 정원 감축 대상은 36%에 불과했다.

개혁평가의 경우 절대평가를 통해 A-E까지 등급을 매기고, A를 받지 못한 대학이 정원을 약간씩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단평가는 상대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64%), 역량강화대학(20%), 진단 제외대학(9%),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3%),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3%) 등 5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가 들어간다. 2018년의 결과는 자율개선대학 64%를 제외한 수

치다. 2021년부터는 하위권 대학이 정원 감축을 모두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이 더 심각

해질 전망이다. 작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따르면 2021년 진단평가는 진단 참여 여부와 인원 감축을 대학의 자율로 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진단평가 기준 중 '학생 충원율'의 배점이 13.3%에서 20%로 늘어난다.

정원 감축이 권고에서 선택으로 넘어가면, 대학이 굳이 등록금 수입을 줄여가며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다. 정원이 그대로 남으면, 선택은 학생의 몫이 된다. 다른 대학에 비해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늘어난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원을 줄여야 한다. 결국 수도권 대학에 비해

인기가 없는 지방대는 감축 인원 대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진단 평가가 변경되면,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비해 인기가 많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은 그대로 유지돼 지방대가 점차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사라진 대학, 남은 사람들

다닌던 대학이 폐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생은 대학이 폐교할 경우 근처의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으나 모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5개 폐교대학 학생을 조

사한 결과, 편입학 비율은 60.4%에 그쳤다. 학생이 편입학을 하더라도 대학별로 상이한 교육과정,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한 혼란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폐교는 교직원 및 교수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지난 2018년 2월 폐교한 서남대학교의 경우 시간 강사 등을 제외한 교직원 210여명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재정난으로 인해 당시 그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173억 원에 달했다. 주용기 전 서남대학교 교수의 '서남대 폐교 이후 교수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교수 62명 중 27명이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폐교는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몰락을 유발한다.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3월 서남대학교 인근 상권 중 78곳의 상가가 문을 닫았다. 학교 근처의 식당, 편의시설 등을 주로 이용하던 학생이 사라지면서 주변 상권이 쇠락했다.

지 교수는 "폐교는 비단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붕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대학의 폐교 이후 주변 상권의 몰락이나 체불 임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교대학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지방대가 숨 쉴 구멍 필요해

전문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대에 불리한 진단평가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진단평가에서 대학인원 감축을 자율로 맡기면 지방대의 폐교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학인원 감축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서 전체 대학이 일정 비율의 인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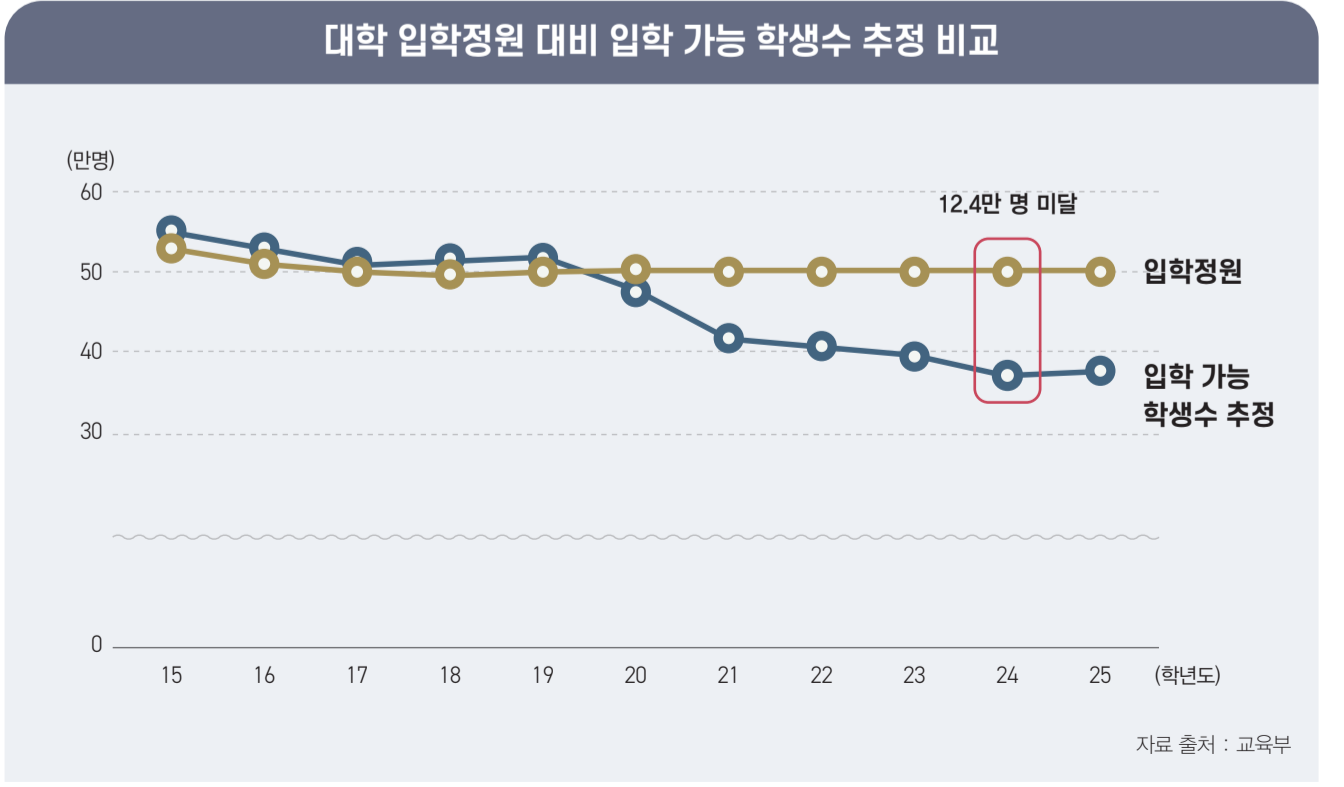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이사회 구성원 교체 등으로 사립대학이 공공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지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할 경우 공익을 우선하는 이사회를 구성해 사립대학 비리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대의 재정적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재정난 문제를 막기 위해 몇몇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비한 수준이다. 지 교수는 "현재 고등교육계는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우 기자  
rdtjrtf@naver.com



▲지난 2018년 2월 폐교한 서남대학교의 로고. 서남대학교의 폐교 이후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도 피해를 입었다.



# 청년 정치는 청년을 위한 미래다



강민진

- 2017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2019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 총선거기획단 기획의원
- 2020 정의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정의당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 <편집자주>

제21대 총선에 당선된 40대 미만 정치인 수는 13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무려 10명이나 늘어났다. 제21대 총선은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첫 선거이기도 했다.

늘어난 젊은 정치인 수와 낮아진 선거 연령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고민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본지는 총 5번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네 번째로 만난 정치인은 정의당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이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 Q. 청년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미래를 살아갈 세대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가 미래를 책임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지금부터 청년에게 닥친 노동, 교육, 생태,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은 더 긴 미래를 살아가야 하니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Q. 청년의 노동환경은 어떤 상황인가?

A. 우리 세대는 학창 시절부터 평생직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은 기성세대보다 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30대의 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청년의 노동 현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확연히 많은 추세다.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노조를 통해 권리를 대변하지도 못한다.

### Q.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A.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전망 설치가 현 상황의 해결책이다. 사대보험과 소득보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 대우를 없앨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비정규직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기존 소득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소득보험이 개인의 소득 변동에 따라 소득 변동의 일부를 상쇄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Q. 교육환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A. 현 교육 시스템은 사회 위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워낙 학벌주의가 심하게 입시로 사람을 경쟁시켜 우열을 나누고 그의 가치로 평가하는 문화가 익숙하다.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잘 쌓아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교육받는다. 정규직에 대한 경쟁은 심해지고,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누구나 자신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노동과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청년의 노동은 똑같이 중요하다. 대학 서열에 대한 인식을 폐지해야 한다. 대학 서열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을 가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24일 과로사 택배 노동자 추모 행진집회에 참석한 강민진 위원장의 모습이다.

## 미래의 주체는 청년이다

청년 남성은 여성들을 대우하는 사회제도 때문에 그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쫓겨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현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왜곡돼 역차별의 오해를 사고 있다.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Q.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우리 세대는 과거처럼 성별에 위계가 없다. 청년은 기성세대에 비해 성적 평등에 적극적이다. 우리의 인식과 다르게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청년의 가치관은 평등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습적인 문화와 사회 인식은 아직도 발전이 없다. 청년은 문화에 뿌리박힌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압박 받는 일부 여성이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비혼을 선언하기도 한다. 어쨌든 변화는 시작됐으니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사회가 감각에 맞춰야 한다.

### Q. 청년을 위한 미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A. 청년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정당 가입은 그들의 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당이 만든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 선택지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꼭 '정치인을 하겠다'는 결의가 아니어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 Q. 청년이 당면한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A.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닥친 문제다. 2050년 기후대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 미래세대를 살아야하는 청년은 제 수명대로 살 수 없게 된다.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손 쓸 수 없다. 실질적인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은 조류색 포장지를 뒤집어쓴 회색뉴딜이라고 본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반적인 산업 체계를 뜯어고쳐야 하지만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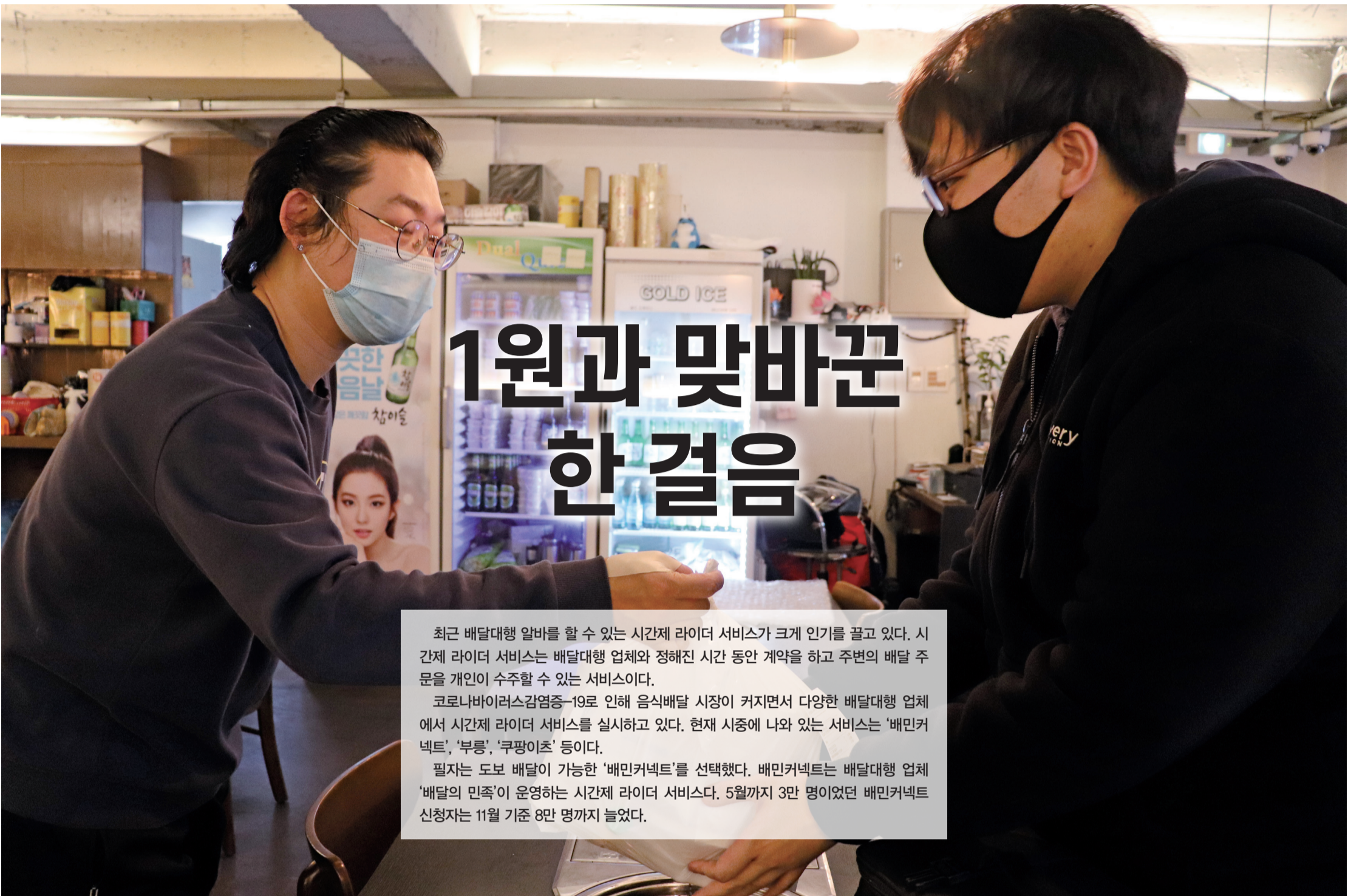
### Q. 사회는 양성평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A. 일부 기성세대의 남성은 아직도 성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육아와 노동도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 존재한다. 청년의 열악한 노동 현실도 한 몫 한다. 일부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욱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배달 아르바이트의 수가 늘어났다. 고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돈이 필요한 청년이 배달을 선택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전문 배달부 외에도, 남은 시간에 소일거리 삼아 걸으며 배달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기자도 '배민커넥트'를 통해 직접 배달에 나섰다.

김선우 기자 rtdjrtf@naver.com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1원과 맞바꾼 한 걸음

최근 배달대행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제 라이더 서비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간제 라이더 서비스는 배달대행 업체와 정해진 시간 동안 계약을 하고 주변의 배달 주문을 개인이 수주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음식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배달대행 업체에서 시간제 라이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는 '배민커넥트', '부릉', '쿠팡이츠' 등이다.

필자는 도보 배달이 가능한 '배민커넥트'를 선택했다. 배민커넥트는 배달대행 업체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시간제 라이더 서비스다. 5월까지 3만 명이었던 배민커넥트 신청자는 11월 기준 8만 명까지 늘었다.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배달수단으로 '도보'를 고른다. 이름,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의 간단한 개인정보를 내지 계약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간다. 처음 본 계약서에 신기한 것도 잠시, 서명 한 번에 계약이 성사된다.

계약을 마치니 배민커넥트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들으라는 메시지가 온다. 배달의 민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전까지 안전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다. 로그인 후 수강신청에 들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_운송, 배송업> 수강을 신청한다. 안전교육은 <배달 및 배송 작업 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 <산업재해 발생 원인 및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총 4분야의 73개 강의와 퀴즈로 이뤄져 있다. 수업 시간은 2시간 정도다.

강의를 모두 듣자 최종평가에 응시하려는 배너가 뜬다. 최종평가는 10문제로 이뤄져 있다. 강의수강 60점과 최종평가 40점을 합쳐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얻어야 배민커넥터가 될 수 있다. 교육을 마치고 배민커넥트 측에 정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메일로 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달 시작>이 가능하다는 문자가 온다.

## 거리로 나선 배달부

배민커넥터 전용 라이더스 앱을 깔고 본격적인 배달에 나선다. 라이더스 앱은 배달요청 수락부터 배달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이더스 앱에서 운행스케줄을 고른 뒤 '운행시작'을 누른다. 운행은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환경을 설정하면서 배차방식을 '일반 배차'로 설정한다. 일반배차는 배차가 들어온 모든 요청 중 자신이 원하는 배차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대기란에 생긴 백만식당이 올린 배달요청이 뜬다. 배달하기 위한 운행정보를 보던 중 다른 커넥터가 해당 배달을 수락했다는 알림과 함께 창이 꺼진다. 빠르게 수락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

배달에 쓰는 가방은 편집국에 있는 카메라 가방으로 대신했다. 배달 가방이 없는 경우에는 배민커넥트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26,400원이다. 가방은 한 사람당 한 개만 구매할 수 있다. 배민커넥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구입한 배달 용품을 배민커넥트 온라인몰에 반납할 수도 있다. 반납하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9시 28분. 알림음과 함께 '추천배차'가 있다는 메시지가 뜬다. 학교 근처 밥버거 식당의 배달이다. 마침 목적지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배차요청'을 눌러 배달을 수락한다. 가게까지는 7분 거리다.

가게에 도착해 음식을 받아 가방에 넣는다. '픽업완료'를 눌러 고객에게 배달을 시작하는 알림을 보낸다. 배송지까지 가는 제한 시간은 10분이다. 배송지에 도착한 시간은 9시 43분. 고객에게 음식을 건네주고 '전달완료'를 누른다. 15분 만에 2,900원이 손에 들어온다.

10시 34분. 다시 알림이 뜬다. 동소문동6가에 위치한 카페에서 정릉2동까지 가는 배달이다. 720m 떨어진 가게에 10분 내로 가야한다. 늦지 않기 위해 빠르게 걷기 시작한다. 정확히 10분이 지난 10시 44분, 가게에 도착해 커피 두 잔을 받는다.

배달 역시 10분 내로 이뤄져야 한다. 842m나 떨어진 배송지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한다. 가방을 들고 있는 팔에 힘이 들어간다. 처음 오는 길인데다 끊임없는 오르막길과 계단에 겨울임에도 온몸에서 땀이 흐른다. 복잡한 길 때문에 시간 내에 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연요청' 버튼을 눌러 고객에게 지연 사실을 알린다. 도착해서 보니 8분이 늦은 상황. 커피를 받은 고객의 표정이 썩 좋지 않다. 이번에 들어온 수입은 3,300원. 다 끝나고 확인해보니 28분이 걸렸다.

## 시급 4,233원

일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배차방식을 바꾼다. 배민커넥트 측에서 베타테스트 중인 'AI 추천 배차' 방식을 누르고 기다린다. AI 추천 배차는 가까운 곳의 배차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수락하는 방식이다. 보통은 수입이 많이

필요한 오토바이 배달부가 활용한다. AI 추천 배차를 쓰면 수락된 요청이 목록으로 만들어지며, 배달요청을 동시에 2개까지 처리할 수 있다.

30분이 지난 11시 30분, 분식집의 배달요청이 들어온다. 가게까지는 423m, 10분이 걸린다. 배송지까지 제한 시간은 15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어서 다시 배송 지연을 누른다. 820m 떨어진 배송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진행 중인 배달이 2개로 늘어났다. 서둘러 배달을 마치고 요청을 확인한다.

늘어난 요청은 가고 있는 방향과 정반대에 있는 부리또 가게의 배달이다. 가게까지 걸린 거리는 824m, 분식집에서 배송지까지 왔던 길을 되짚어 가야할 만큼 멀다. 부리또 가게로 전력질주 한다. 배송지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932m. 경로를 확인해보니 1.6km를 걸어야한다. 제한 시간은 15분. 다시 뛰해보지만 결국 '지연요청' 버튼을 누른다. 배달 두 개를 끝내고 시계를 본다. 1시간 5분 동안 3km를 넘게 걸어서 번 돈이 6,500원이다.

'운행종료'를 누르고 신문사로 돌아간다. 라이더스 앱에는 3시간 동안 총 4번의 배달을 하고 2.7km를 이동했다고 나온다. 사실상 6km 가량 걸었지만, 가게부터 배송지까지의 거리만을 표기한 것이다. '오늘 수입'에는 12,700원이 찍혀있다. 시간당 4,233원 가량 번 셈이다.



## 늦지 않으려면 뛰어야 한다



· 삼 학 송 ·

### 평평한 소통의 운동장에서

‘불통즉통, 즉통불통(不通即痛, 即通不痛)’.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동의보감에 나온 말이다.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의학을 넘어선다. 어떤 집단에서든 구성원 간 소통은 중요하다.

소통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선거철이다. 학생대표로 나온 후보자는 너도나도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겠다”고 외친다. ‘소통’의 목적은 무엇일까. 학생의 말을 잘 모으는 것? 학교의 결정을 잘 파악하는 것? 양자의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참여한 모두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누군가의 정보만 너무 많다면 다른 쪽은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보의 비대칭이다.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입장에 대입해보면, 학교와 총학, 학생 3자의 정보격차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은 학교와 바로 소통하기 어렵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과 소통하기 어렵다. 이 둘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총학이다.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총학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의 결정과 그 과정을 학생에게 세심하게 알려야한다.

이번 총학은 간담회 등을 통해 3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본교는 지난 학기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정기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사 일정 변동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 전, 총학은 학내 커뮤니티와 본교 공식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게시해 온라인 강의 연장, 블렌디드 강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취합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 측에 전달됐다.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여러 대응을 논의하는데 활용했다.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과정은 꽤 성공적이었다.

그렇다면 학교의 입장은 학생에게 잘 전달됐을까?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교가 온라인 강의 개강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던 8월 16일, 총학은 ‘대학본부 회의’에서 2학기 전면 온라인 개강을 요구했으며, 본부의 대답은 28일에 들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학생은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다”며 “대학본부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학생의 요청에도 총학의 답변은 없었다. 학생은 16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어떤 대답도 들지 못한 채 불안한 개강 준비를 해야 했다.

정보가 부족한 쪽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역선택이다. 학생이 불안한 이유는 기숙사, 휴학 여부, 취업 등에 있어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만약 대학본부 회의에서 오고 갔던 내용을 총학이 공개했다면 학생의 불안함은 덜하지 않았을까.

소통을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한다. 총학생회는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없다. 학생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학교의 주장에 때로는 물리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마다 과정을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답이 나왔을 때는 그 답이 나온 과정과 근거를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학교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충분히 정보를 줄 수 있다면, 학생도 학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지난 9월부터 2021학년도 학생회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섰다. 새로운 총학생회는 앞선 총학생회가 지난 간담회를 살펴보고 의견을 해하려야 한다. 정보 격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다. 새로운 총학생회와 함께 평평한 운동장에서 함께 소통하는 학생의 모습을 기대한다.

박희연 편집국장



지난 1일 우리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전공적성고사'가 끝나고, 학교정문은 돌아가는 수험생으로 붐볐다. 지원자는 총 5,335명이며 경쟁률은 14.04대 1이다. 적성고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성고사라는 여정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다가올 여정을 향해 수험생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 최성훈 기자

### ■ 기자수첩

### 5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오늘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한지 50주년이 지났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를 옥사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을 불살랐다. 전태일 열사의 항거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한 획을 그었으나, 최근 노동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은 그의 희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달 27일, 한 택배 노동자가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사망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부른 참사”라고 설명했다.

택배 노동자의 죽음은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만 총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10월 12일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사망하기 전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서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나면 잘 시간도 없이 일하러 가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히 살인적인 노동환경이다.

택배 노동자는 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택배 노동자는 영업소와 계약을 맺고, 영업소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는다. 택배회사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없는 셈이다.

일한 대가와 달리 급여를 적게 받는 점도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터미널에 쌓인 택배를 분류해 차에 실어야 한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의 급여는 배송 건수에 따라 지급된다. 분류 작업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에 분류 작업을 넣지 않는, 말 그대로 무급 노동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택배 배송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택배 노동자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계처럼 옥사당하고, 심하면 과로사로 사망하는 게 현실이다. 전태일 열사가 이 광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할까.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으로 소비자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우리의 편리함 이면에는 반세기 전 전태일 열사의 울부짖음과 다르게 ‘근로기준법’ 준수도 없이, 기계처럼 옥사당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가 있다. 이들의 희생과 고난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김준수 기자

### ■ 의화정

### 동네의 再발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인 복잡한 빌딩숲 안에 궁궐과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역사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흔적은 성곽과 4대문 안 5대궁에 남아있다.

우리학교가 있는 삼선동은 북촌과 서촌만큼 서울에서 역사의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네이다. 여기 오래 살았던 사람은 삼선동이 서민의 삶을 담고 있는 동네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특히 168채 주택이 모여 있는 삼선동 장수마을은 낙산자락 구릉지에 천막과 판자로 지은 무허가 주택이 그대로 마을을 형성한 동네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었다. 이름은 낙산 수영장이다. 당시 한성여고가 있었던 곳(현 한성대학교 자리)이고 현재는 한성대학교 공학관과 상상빌리티가 들어서 있다. 한성대 구성원 중에도 학내에 낙산수영장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86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학교 정문 앞에는 한아름, 대학분식, 윤가네, 승리장, 카피랜드 같은 오래된 가게들이 있었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천막에 싸여있다. 철거되고 재개발돼 동네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학교가 수십 년 동안 좁은 통학로에 갇혀있었던 부분이 해소되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긴 역사를 간직한 동네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허탈하다.

현대건축의 거장인 르 꼬르뷔지에는 자신의 저서 ‘건축을 향하여(1923)’에서 “건물은 주거를 위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물은 주거를 위한 기능적 공간이기에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건물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주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이라고 적혀있다. 주거는 단지 머물며 살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동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동네에 대한 의식은 단지 주거공간을 늘리고 주차장이 완비되며 길이 넓어지는 편리성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뉴욕의 현대도시 계획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성’이라는 도시 계획과 건축의 새로운 전통을 실현시킨 ‘로버트 모지스’처럼, 성곽의 역사성과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에 담긴 숭고한 뜻이 숨어있는 삼선동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주형(CT디자인학부)교수

### ■ 낙산에 올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현재도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감소세와 확산 사이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확진자 수 때문에 수많은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 코로나19의 불안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업종이 있다. 바로 ‘배달업체’다.

밖에서 식사하기엔 찜찜하고 집에서 매번 요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준다는 장점 때문에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조 962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65%가 증가했다고 하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달음식을 찾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다.

### 비대면 문화, 바빠지는 배달업체

아이러니하게도 높아진 수요는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에게 양날의 검이 됐다. 배달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매출과 배달비용이 같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배달업체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며 배달비를 높였지만, 인력 확보는 여전히 어렵다. 배달대행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를 10~20% 가량 올리며 배달원 유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배달원 숫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배달비 상승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전에 쓰던 밥값에 배달비가 추가된 셈이다. 일부 프랜차이즈커피에서는 5000원짜리 음료 한 잔 배달에 배달비 5500원이 들어가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커피를 마셔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배달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아, 배달원의 고생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해 배달이 지연되면서, 음식점도 밀린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음식 값은 높아지는데 서비스는 점점 나빠지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비대면 문화로써 배달과 포장을 권장하고 있다. 배달이 서민의 주된 배를 채우는 기수가 된 셈이다. 예상치 못한 인기에 배달업체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는 이상 배달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기수가 달려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김지현(IT 3)

### 기자사령

- 임 부장기자 김준수(사회과학 1)
- 정 기자 박현규(IT 2)
  - 송정원(인문 2)
  - 신혜림(상상력 1)

### 퇴

정 기자 주진솔(IT 1)

### 동정란

안광준 (ICT디자인학부) 교수 안 교수의 지도로 ICT디자인학부에서 학생디자인특허 192건을 출원하였으며, 현재 92건이 특허청에 등록됐다.



##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뜨거운 열정



- 1 슈퍼스타 상상부기 우수상 수상자 김정훈 (IT 4) 학우가 가수 로시와 듀엣 무대를 꾸몄다.
- 2 슈퍼스타 상상부기 우승자 한지민(사회과학 3) 학우와 가수 황인옥씨가 진행자 MC 당동과 인터뷰 하는 모습이다.
- 3 대동제 관중은 무대에 열띤 환호를 보냈다.
- 4 코로나19 UCC 공모전 대상은 전수연(IT 2) 학우에게 돌아갔다.
- 5 2세트에서 승리한 미드가 구멍 팀의 모습이다.
- 6 클라우드 템플러(이현우) 해설위원이 경기 시작을 알렸다.
- 7 학우들은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관람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함성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모니터 너머로 뜨거운 열정은 가득했다. 지난 11·12일 양일간 온라인 대동제가 개최됐다. 손에 땀을 쥐게 한 LOL E-sports 대회부터 감미로운 목소리로 고막을 녹인 슈퍼스타 상상부기까지, 축제를 생중계하는 동안 우리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동시 접속자가 500여 명을 넘었다. 무료했던 비대면 학교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은 온라인 대동제 현장을 담았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